



가을의 문턱 9월에는 지역 특색을 잘 살린 아기자기한 축제들이 준비해 지방 나들이에 큰 즐거움을 준다. 불갑산상사화축제 시기에 불갑사를 찾으면 빨간 꽃무릇 사이를 산책할 수 있다.

사진제공 | 영광군청

선홍빛 꽃바다, 신명나는 가락…

가을, 축제로 물들다

느낌 있는 9월의 축제

국내 최대 상사화 군락지 불갑산 꽃축제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파주 북소리 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흥겨운 공연에 들썩



한낮에는 아직은 물러나기 싫어하는 무더위의 마지막 몸부림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9월

로 다가설수록 아침저녁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가을의 문턱 9월에는 여름휴가철과는 다른 여행의 재미가 있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주말을 이용해 가볍게 1박2일이나 2박3일 여정으로 다녀오는 지방 나들이가 즐겁다. 때마침 9월 들어 지역 특색을 잘 살린 아기자기한 축제들이 제법 많이 열린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그중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양 물레방아골축제와 산삼축제, 파주 북소리, 평창백일홍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등을 9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했다.

●노을처럼 피어오른 선홍빛 꽃, 불갑산상사화축제(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불갑산은 국내 최대 상사화 군락지다. 9월 전후에 만개하는 선홍빛 꽃무릇을 포함해 진노랑상사화와 분홍상사화 등이 서식해 상사화축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불갑사 관광지에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인도 공주와 경운스님의 설화를 배경으로 구성된 상사화 아간 페레이드가 인기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9월14일부터 17일까지 두우리 갯벌에서 열리는 영광전일염·갯벌축제를 묶어서



난계국악축제 장구치기 체험, 함양산삼축제 산삼캐기 체험, 파주 북소리 축제(왼쪽부터)는 지난해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사진제공 | 영광군청, 함양군청, 파주시청

함께 돌아봐도 좋다.

●두 축제를 한번에 1석2조, 함양 물레방아골축제와 산삼축제(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꽃무릇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축제다. 경남 함양은 올해 그동안 따로 진행해 온 산삼축제와 물레방아골축제를 같은 기간에 진행한다. 축제의 주요 무대 중 하나인 상림공원은 붉은 꽃무릇으로 꾸밀 예정이다. 함양에는 조선 시대 성리학의 대가 일두 정여창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개평한옥마을과 남계서원, 풍광 좋은 너럭바위와 화림동계곡 같은 명소들이 있다.

●책의 바다에 풍덩, 파주 북소리(경기 파주시 회동길)

국내 최대 복합 지식 문화 축제다.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파주 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린다. 심야에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지혜의 숲 심야 책방-읽어 밤'을 비롯해 한국 영화 OST를 재즈음악으로 만나는 '재즈 밋츠 시네마'(Jazz Meets Cinema), 정호승·이병률·은희경 등이 참여하는 '작가와 마주 앉다-작가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를 즐기면서 이곳의 피노

키오 뮤지엄,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등도 함께 방문하면 좋다. 인근에 벽초지문화수목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 예술마을 등의 명소도 있다.

●너른 들만 가득 붉은 물결, 평창백일홍축제(강원 평창군 평창읍 제방길)

평창강 둔치 약 3만㎡에 가득 핀 백일홍이 매력적인 축제. 9월23일부터 10월8일까지 열린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3회째지만 100만 송이에 달하는 백일홍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붉은 물결을 일으키는 장관이 입소문을 타면서 알려졌다. 인근 평창올림픽시장은 평창 올림픽이 이름을 바꾼 것인데, 철따라 평창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키점프 경기가 열리는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월정사 천년의 숲길, 무이예술관도 여행길에 들리면 좋다.

●신명나는 장단에 열쑈~, 영동난계국악축제(충북 영동군 영동천 일대)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천 일대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로 난계 박연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이다. 난계국악단의 흥겨운 국악 공연과 다양한 퓨전 국악 연주,

조선 시대 어가 행렬과 종묘제례악 시연 등이 열린다. 축제 기간에 영동천 일원에서는 대한민국 와인축제도 함께 열린다. 박연 선생이 자주 가서 피리를 불었다고 박연폭포라 불리는 옥계폭포, 강선대, 울창한 소나무 숲의 송호국민관광지, 영화 '집으로'의 첫 장면을 찍은 도마령 등도 함께 돌아볼만하다.

●역사의 교훈을 즐기며 배운다, 홍성역사인물축제(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9월22일부터 24일까지 홍주읍성에서 열리는 홍성역사인물축제는 최영 장군, 사육신 성삼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사, 현대미술 애용 화백, 전통 춤의 대가 한성준 등 홍성이 배출한 인물 6인을 주제로 한 행사다. 위인의 삶을 경험하는 '생생한 역사 현장 체험'을 비롯해 역사 인물 보드게임, 홍주읍성 소원 걸기, 역사 인물 아트존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밤에는 이들을 주제로한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간다면 홍성역에서 출발해 홍주의사촌, 홍주향교, 홍주성을 거쳐 홍성전통시장까지 홍성의 1000년 역사를 느끼는 걷기 코스도 함께 경험하면 좋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좀비 추격전 “규모가 다르네”

에버랜드, 7일 테마존 '블러드시티' 오픈
좀비 분장, 영화 특수효과 등 리얼 체험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는 올해 할로윈 축제를 맞아 9월7일 10만㎡ 규모의 공포도시 '블러드시티'(사진)를 오픈한다.

알파인 지역과 사파리월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으로 이어지는 넓은 부지에 마련된 '블러드시티'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10년 동안 폐쇄돼 온 도시에 의문의 구조 신호가 포착돼 전문 조사팀을 투입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파크 방문객이 직접 블러드시티 조사팀의 일원이 된다는 설정으로 생존자 확인과 탈출을 위한 다양한 호러 콘텐츠를 체험한다. 입구의 '마담좀비 분장살롱'에서는 분장 전문가의 메이크업을 통해 직접 좀비로 변신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 영화 미술감독이 '블러드시티' 제작에 참여해 다양한 호러 디자인과 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이 생생하게 어우러진다. 조사팀이 타고 온 추락 비행기나 좀비가 습격한 버스 등도 모형이 아닌 실물 비행기와 차량을 사용해 현실감을 높였다.

티익스프레스와 아마존익스프레스도 밤에는 블러드시티를 탈출할 수 있는 호러 어트랙션으로 변신한다. 이밖에 블러드시티 곳곳에서는 실감나는 특수 분장으로 리얼리티를 극대화한 좀비 전문 연기자 100여명이 예고없이 등장한다. 매일 밤마다 열리는 '크레이지 좀비헌트'에서는 수십 명의 좀비들이 손님들을 습격하는 상황극과 함께 플래시몹 댄스, 포토타임 등을 진행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최신 IT 기술을 통해 이색 호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 체험존'도 블러드시티 용인주 지역에 새롭게 마련했다.

'블러드시티'는 9월7일 할로윈 축제 오픈과 함께 매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며 이후 일몰 시간에 맞춰 오픈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다.

한편 할로윈 축제의 모든 호러 콘텐츠를 폴코스로 경험할 수 있는 '블러드시티 공포체험단' 모집 이벤트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witheverland)에서 30일부터 시작했다. 누구나 댓글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100명을 현장 초청해 좀비 분장과 함께 호러 티익스프레스, 호러 아마존익스프레스, 호러사파리 등 모든 호러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모두투어, 히말라야 트레킹 테마여행 출시

모두투어(사장 한옥민)는 11월에 네팔의 히말라야 트레킹을 주제로 테마여행을 진행한다. EBS '세계테마기행' PD이자 작가 겸 여행저널리스트인 탁재형 PD가 진행하는 이번 테마여행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북쪽으로 티베트와 접해 있는 아름다운 히말라야의 랑탕 코스에서 진행한다. 현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의 교류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네팔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11월10일 대한항공 카트만두 직항편을 이용하며 투어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44-5252)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모두투어는 홍콩 미술관 테마여행에 이어 이번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기획했고, 앞으로도 스포츠, 요리, 사진, 건강 등을 주제로 한 테마여행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민중전화 제 2016-482-8

FCE/SID
FCE No. 15483

신기술발명특허
특허 제 10-2015-0000000
특허 제 10-2015-0000000
특허 제 10-2015-0000000
특허 제 10-2015-0000000

이노비즈매거진-BK21
기술혁신영웅상 수상
수상자명단 (제6105-389152)

무주 반딧불 축제 기념행사 8/26~9/3 축제기간 한정

샘플 2병 무료체험



무주 천마정



원재료 배합비율
천마(국내산) 60%, 오가피(국내산)
25%, 당귀(국내산) 5%, 천궁, 작약,
갈근, 두충, 창출, 숙지황 등등

〈30g × 2병〉 *택배비 2,500원 본인부담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천마!
천마는 무주의 자랑입니다.

천마는 좋은 토양에서 비료도 주지 않고 2년동안 참나무나
뽕나무진액을 빨아먹고 자라는 자연식물 입니다.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
MJ HEALTH FOODS CO.,LTD.

전화주시면 무료체험분 30g 2병을 보내드립니다

(고농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샘플을 통해서 먼저 체험 해 보세요!

무료체험 신청전화

02-996-5836
02-996-5837